

김 육 전 기

김 육 연보

- 1580년(선조 13년) 서울 서부 마포리(마포리)의 외가에서 출생
1588년(선조 21년, 9세) 강동에 가서 지산 조호익의 가르침을 받다.
1592년(선조 25년, 13세) 임진왜란이 일어나 피난하다.
1594년(선조 27년, 15세) 해주에 가서 우계 성혼(牛溪 成渾)의 가르침을 받다. 부친상을 당하다.
1600년(선조 33년, 21세) 모친상을 당하다.
1604년(선조 37년, 25세) 진사 윤급(尹汲)의 따님과 결혼하다.
1605년(선조38년, 26세) 사마회시(司馬會試)와 관시(館試)에 합격하다.
1610년(광해군 2년, 31세) 태학생으로서 소(疏)를 올려 종사오현을 청하다.
1611년(광해군 3년, 32세) 대학재임으로서 정인홍의 유적(儒籍) 삭제에 앞장서다.
1613년(광해군 5년, 34세) 경기도 가평 잠곡(潛谷) 청덕동(淸德洞)에 거처를 정하다.
1614년(광해군 6년, 35세) 관직의 뜻을 버리고 가족을 이끌고 잠곡에 들어오다.
1623년(44세) 인조반정(仁祖反正)광해군 시절에 등용되지 못한 유능한 인재로 인정 받아 의금부도사로 발탁되었다가 한달만에 파직당하다.
1624년(인조 2년, 45세) 이괄의 난에 왕을 수행한 공로로 음성현감에 임명되다.
회시(會試)에 합격하고 전시(殿試)에 장원하다. 사간원의 정언으로 임명되다.
(그 이래 관직의 이동이 빈번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직 이동만을 기록한다.)
1625년(인조 3년, 46세) 병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兵曹佐郎兼 春秋館記事官),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다.
1626년(인조 4년, 47세) 병조정랑 겸 호패청낭청(兵曹正郎兼號牌廳郎廳) 등을 역임하다.
1627년(인조 5년, 48세) 호패(號牌)의 폐지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다.
1628년(인조 6년, 49세) 이조정랑(吏曹銓郎) 직무수행의 과오로 문외출송(門外黜送)을 당하다.
1631년(인조 9년, 52세) 용서를 받다.
1632년(인조 10년, 53세)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補德) 등을 역임하다.
1633년(인조 11년, 54세) 9월에 안변도호부사가 되고 1636년 정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서울로 오다.
1636년(인조14년, 57세) 동지성절추진하사로 임명되어 7월 명나라 수도로 가다.
1637년(인조15년, 58세) 병자호란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귀국하다.
1638년(인조16년, 59세) 충청도관찰사로 임명되고 다음에 8월에 조정으로 돌아오다.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고<구황촬요급벽온방>을 간행하고 수차를 제조하다.
1640년(인조18년, 61세) 우승지(右承旨)등을 역임하다.<황명기략>을 저술하다.
1642년(인조20년, 63세) 사간원대사간등을 역임하다 <유원총보>를 저술하기 시작하다.
1643년(인조21년, 64세)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도승지(都承旨), 원손보양관 등을 역임하다.
12월에 원손을 모시고 청나라 심양으로 출발하고 다음해 8월에 북명하다.
1644년(인조22년, 65세) 서로(西路)에 수레와 동전의 사용을 건의하다. 형조판서에 임명되다.
1645년(인조23년, 66세) 사헌부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하다.
1646년(인조24년, 67세) 사은부사로서 북경에 다녀오다.
임경업을 청나라로부터 압송하던 중의 잘못으로 파직당 하다.
1647년(인조25년, 68세) 개성유수로 임명되고, 2년후 임기가 만료 되다.
1649년(효종 즉위년, 70세) 인조가 승하하여 임시로 예조판서를 맡으면서 국정도감제조를 겸하다.
1649년(효종 원년, 70세) 우의정에 임명되다.
1650년(효종 2년, 72세) 진향사로 북경에 다녀오다.평안,황해도에 동전 유통을 시도하다.
1651년(효종 2년, 72세) 영의정에 오르다.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다.

인조실록의 총재관으로 임명되다.

차남 우명의 차녀가 왕세자빈이 되다.

1652년(효종 3년, 73세) 해동명신록을 편찬하기 시작하다.

1653년(효종 4년, 74세) 시현력을 시행하다.

1656년(효종 7년, 77세) 동전유통책이 중단되다.

1657년(효종 8년, 78세) 전라도에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고 추진하다.

1658년(효종 9년, 79세) 전라도 연해읍에 대동법이 시행되다.

서울 남부 회현방의 자택에서 돌아가시다.

1659년(효조 10년) 충청도의 사민이 대동선혜비를 세우다.

1660년(현종원년) 김육에게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내리다.